

불교상당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35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무속신앙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은 관둔지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신용불량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일, 식당일 등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힘든 걸 떠나 원저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보살님은 제가 인덕이 없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니, 저더러 절에 들어가 생활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딱히 죄짓고 산 것도 아닌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고 적응이 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절 생활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입문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시곤 올해 남편과 저한테 삼재가 들었으니,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며 부적을 써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성의를 표해야 한다고 해서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바가지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분은 그 스님이 용하다며 다른 절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법문 같은 것을 들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애들이 대학도 갈 테니, 그 절에 보시만 많이 하면 애들한테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가 마음 공부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 절을 다니라고 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인 시부모님 돌아가신 후 찾은 절이 이상해요
사찰은 복 비는 곳이 아니라 마음공부 하는 곳

A 우선은 내담자님께서 가까운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우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만나게 돼 사람들을 꺼려했던 내담자님도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릴 것입니다.

기도 후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공간장에서 살거지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면 복도 지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꾸준히 만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걱정을 헤쳐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불교에 대해 실망이 크신 듯합니다. 하지만 삼재나, 액땀 등 이런 말에 자주 꼬달리게 되면 안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근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돈에서 자신을 보호해 참회하고 기도하면, 정신을 맑혀 줍니다. 내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불교는 복을 비는 곳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웃분의 권유로 울바르지 않은 신행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절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이 대학을 코앞에 두면 자식 걱정에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수보리, 라졸라, 아미타 반 중 수보리여니 우승을 차지했고, 황유경 학생(12)이 으뜸학교 최우수상인 석가모니 상을 수상했다.

황유경 학생은 "남양주 봉선사에 어머니와 함께 매주 다니고 있다. 합동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우승현(14) 학생은 "담력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련장에서 호국사자사까지 5-6명씩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놀래 줬다. 뜰에 날 있었던 수영도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호국사자사는 군법당이지만 지역 사회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당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지역민과 호흡하며 쑥쑥 성장해요

사랑법당 탐방 호국사자사 여름불교학교

"와아아-잡아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호국사자사(주지 재가 김재욱 법사에서) 난데없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수색, UDT 등 많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령부, 세계 최강의 전력으로 자부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왜일까? 바로 호국사자사에서 7월 23-25일 개최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진다. 특히 불자 부모들은 자녀의 불교적 소양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각 사찰들과 군법당 등은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부대에서 여름불교학교라니 혹자는 의아해 한다. "군부대 특성 상 출입이 제한되지 않을까? '사찰이 아닌 군법당이 여름 불교학교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이다."

하지만 호국사자사의 여름불교학교는 이러한 의문을 속 시원히 해결한다.

사자사도, 참선 등 기본적인 불교 교양을 쌓는 일정 이외에 특전사 부대에 맞는 담력체험과 수영교육, 호국정신 양성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선 사찰들과 차별성을 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볼까. 7월 25일 회향식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밝게 빛났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수보리, 라졸라, 아미타 반 중 수보리여니 우승을 차지했고, 황유경 학생(12)이 으뜸학교 최우수상인 석가모니 상을 수상했다.

황유경 학생은 "남양주 봉선사에 어머니와 함께 매주 다니고 있다. 합동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온 우승현(14) 학생은 "담력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련장에서 호국사자사까지 5-6명씩 내려오는데 선생님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놀래 줬다. 뜰에 날 있었던 수영도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호국사자사는 군법당이지만 지역 사회



호국사자사 여름불교학교에는 100여 아이들이 참여했다. 군법당 불교학교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지만, 사찰 측은 참여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전사령부 군법당은 담력체험·수영교육으로 차별화 '인기' 민간인 신도 70%... 바자회·웰빙캠프·연꽃축제 등 행사 다채

에서 일반 사찰 못지않은 활동을 펴고 있다. 송파구 관내에서 불광사를 제외하고 신도 수가 가장 많은 정도다.

주지 김재욱 법사는 "특전사령부 영내에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과 골 들어설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좋아 민간인 신도가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행사도 한몫했다.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2005년 3월 만들어진 천수회가 진행해 온 사군자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와 산사영화제, 사자사 웰빙캠프, 산사 연꽃축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군법당 특유의 한계도 있다.

김 법사는 "군법당 특성상 보안 조치가 강하다. 민간인 신도들이 보안검열 등에서 한번 불편을 겪으면 다른 사찰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부사관 부대로 주말 종교 활동이 자율이라 참석을 유도하는 것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이어 "향후 새로 짓는 군법당은 영외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과 군장병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 군교회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주지가 자주 바뀌는 군법당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민간 신도들이 주축이 된 실행 활동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신도조직이 활성화돼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호국 사자사는 도심에 자리한 군부대 법당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1997년 광주 상무대의 이전



여름불교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이 참선을 배우고 있다.

후 민간 사찰로 전환, 지역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광주 무각사처럼 2012년 특전사령부 이전을 앞둔 호국 사자사가 지역거점사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세안타올**



■삼베세안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세안타올 세안법

- ① 삼베헤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위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위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일, 냉수마찰, 스포츠타올,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분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움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 세척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척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실성소 등
- 규 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위타올**



■삼베사위타올 - 각 15,000원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위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매일, 냉수마찰, 스포츠타올,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솜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따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글레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솜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솜포마사지가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사지가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사지를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이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거칠어진 의상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갑니다.
-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으므로 때가 안 갑니다.
-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상특별할인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헤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위타올 + 삼베헝군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